

보도시점 2023. 5. 17.(수) 08:00 배포 2023. 5. 17.(수) 08:00

‘찾아가는 도쿄 도서전’으로 일본 내 K-북 열풍 확산, 문화협력 지평 확대

- 5. 17.~18. 일본 도쿄에서 K-북 수출상담회 개최
- 국내 출판기업 21개사, 일본 기업 45개사 참가, 위탁도서 100여 종 상담 대행
- 일본 10~20대, 강력한 K-북 독자층으로 부상, 양국 MZ세대 간 소통과 공감 기대

일본 내 K-북 열풍을 확산할 K-북 수출상담회가 도쿄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준희, 이하 출판진흥원)과 함께 5월 17일(수)부터 18일(목)까지 일본 도쿄의 파크 하얏트 도쿄(Park Hyatt Tokyo)에서 ‘찾아가는 도쿄 도서전’을 개최한다.

* ‘찾아가는 도서전’ : 국내 출판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해외 3~4개국을 찾아가 출판저작권 비즈매칭 수출상담회 개최

이번 도쿄 수출상담회는 지난 2020년과 2022년에 이어 3회째로, 특히 올해는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인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다지고, 최근 일본 내에서 불고 있는 K-북 열풍을 지속 확산해 양국 간 문화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기 위해 마련했다.

박보균 장관은 “최근 전통적으로 인기 있는 K-팝, K-드라마뿐만 아니라 일본 내에서 K-북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졌다. 일본의 10대, 20대가 K-북의 강력한 독자층으로 부상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양국 MZ세대들이 K-북을 매개로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길 바라며, 문체부는 K-북이 일본 독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2022년에는 손원평 작가의 소설 ‘아몬드’와 ‘서른의 반격’이 일본서점대상 번역소설 부문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올해에도 같은 작가의 소설 ‘프리즘’이 다시 2위에 올랐고,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김수현)>,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백세희)> 등 한국의 힐링 에세이도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관심 분야도 그림책, 영상화된 원작소설 등 특정 장르에 한정되지 않고 한국 도서 전반으로 이어지면서 독자층의 저변이 확장되고 있다.

일본, 카도카와슈에이사·쇼가쿠칸 등 대표출판사 포함한 45개사 참가

이번 상담회에는 총 45개의 일본 출판사가 참가한다. 일본 대표 출판사인 카도카와(KADOKAWA)¹⁾, 슈에이사(集英社)²⁾ 등이 올해 새롭게 참가하고, 쇼가쿠칸(小学館)³⁾, 포푸라사(株式会社ポプラ社)⁴⁾, 분게이슌쥬(文藝春秋)⁵⁾, 각켄((株)学研)⁶⁾과 일본 최대 해외 저작권 중개회사인 터틀모리 에이전시(Tuttle-Mori Agency)⁷⁾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가한다.

- 1) 1945년 설립. 산하에 잡지사, 영화사, TV스튜디오, 서점 등이 있으며, 라이트 노벨 분야에서 독보적인 출판사
- 2) 일본 3대 만화출판사 중 하나로, 다양한 만화를 비롯, 소설을 출간하고 있으며, 최근 게임회사 설립
- 3) 2022년 초등학교 교육 잡지로 시작. 현재 패션, 라이프스타일, 만화 등 다양한 잡지와 그림책, 문학 등 출간
- 4) 1947년 설립된 아동출판사. ‘영당이 탐정’, ‘웜피키드’ 등 인기 작품 다수 출간. 한국도서 <당근유치원(안녕달)>, <플라스틱 섬(이명애)> 등 수출
- 5) 1923년 설립된 일본 대표 출판사. 아쿠타가와 류노스케상 등 전통 있는 문예상을 수여
- 6) 일본 대표 아동출판사. 초중등 참고서, 아동 단행본, 교육서 등 다수 베스트셀러 출간. 한국도서 <이상한 손님(백희나)>, <Why? 시리즈> 일부 등 수출
- 7) 일본 번역출판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일본 최대 해외 저작권 에이전시

국내에서는 문학동네, 사계절출판사, 위즈덤하우스, 대원씨아이 등 21개 사가 참가하고, 출판저작권 중개회사인 제이엠(JM)콘텐츠 에이전시가 참가해 국내 위탁도서 100여 종의 수출 상담을 대행한다. 올해는 수출 상담 분야도 문학, 그림책, 만화, 웹툰, 웹소설, 경제경영, 여행서, 큰글씨책 등 다양하다. 수출 상담이 이루어지는 K-북에 대한 정보는 출판수출 영문플랫폼인 ‘케이북(k-boo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열린 도쿄 상담회에서는 총 200건 이상의 수출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이중 미래엔아이세움의 <조심해 시리즈>, 우리학교의 <한복선의 엄마의 밥상> 등 다수의 수출계약이 성사되었던 만큼 올해도 수출 성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 2일 차인 18일(목) 오후에는 한국 참가사들이 일본의 대표 아동출판사인 각켄(学研)을 방문해 일본 출판시장의 현황과 경향, 한국도서 출간 경험과 한국도서에 대한 의견 등을 청취하면서 상호 교류와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7월 태국, 9월 프랑스에서 찾아가는 도서전으로 K-북 열풍 세계로 확산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이번 도쿄 수출상담회에 이어 오는 7월에는 태국(방콕), 9월에는 프랑스(파리)에서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해 K-북에 대한 열풍을 전 세계로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 1. ‘2023년 찾아가는 도쿄 도서전’ 참가사 명단(한국, 일본)
- 2. ‘찾아가는 도서전’ 상징 및 ‘2022년 찾아가는 도쿄 도서전’ 현장 사진

담당 부서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책임자	과장	김도영 (044-203-3241)
		담당자	주무관	이숙은 (044-203-3248)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일류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
지적브리핑



한국 출판사	
1	고래벳속
2	대원씨아이(주)
3	도서출판 폭스코너
4	도서출판 푸른숲
5	문학동네
6	북멘토
7	사계절출판사
8	산지니
9	서사원 주식회사
10	센시오
11	소통
12	에스앤아이팩토리
13	에이플랫
14	우리나비
15	우주북스
16	위즈덤하우스
17	은행나무출판사
18	이지앤북스
19	책공장더불어
20	커뮤니케이션북스
21	후즈갯마이테일

일본 출판사	
1	Toyo Keizai (東京經濟新報社)
2	Gendaijinbun-sha (現代人文社)
3	Japan Uni Agency (日本ユニエージェンシー)
4	Kokudosha (国土社)
5	Shogakukan (小学館)
6	Tuttle-Mori Agency (タトル・モリ エージェンシー)
7	Sunmark (サンマーク出版)
8	Misuzu Shobo (みすず書房)
9	Youyousha Books (葉々社)
10	Hara Shobo (原書房)
11	Anonima Studio (アノニマ・スタジオ)
12	Maar-sha (マール社)
13	PieBooks (PIE International)
14	Shueisha (集英社)
15	Asa Books (あさ出版)
16	SDP (Stardustpictures)
17	Bronze Shinsha (ブロンズ新社)
18	Daiwa Shobo (大和書房)
19	Eastpress (イースト・プレス)
20	Tatsumi publishing (辰巳出版)
21	Sekaibunka (世界文化社)
22	Hyoronsha (評論社)
23	Froebel-Kan (フレーベル館)
24	Film Art (フィルムアート社)
25	Poplar Publishing (ポプラ社)
26	Otsuki Shoten (大月書店)
27	Chikuma Shobo (筑摩書房)
28	Gakken (株式会社 学研)
29	Ask Publishing (アスク出版)
30	Fukuinkan Shoten (福音館書房)
31	Diamond (ダイヤモンド社)
32	Tababooks (合同会社 タバブックス)
33	Bungeishunju (文藝春秋)
34	Cuon (株式会社 クオン)
35	PHP INSTITUTE (株式会社 PHP 研究所)
36	DOUKEISHA (株式会社 憧憬社)
37	Raichosha (雷鳥社)
38	KINNOHOSHI (株式会社 金の星社)
39	KAWADE SHOBO (河出書房新社)
40	Mainichi Shimbun (毎日新聞出版 株式会社)
41	Tokuma Shoten (株式会社 徳間書店)
42	KADOKAWA
43	HOTAKA BOOK (株式会社 穂高書店)
44	Begin
45	HANA

